

# 한 흑인학자의 '삶'에 담긴 종교해석

## 찰스 롱의 「의미작용 : 종교해석에 있어서의 기호와 상징과 상」

정진홍

서울대 교수·종교학

나는 학문적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이다. 내가 이른바 학문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한, 나의 이러한 비학문적 태도가 얼마나 참혹하게 경멸당할 만한 것인가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인식의 언어란 언제나 고백의 언어에 의하여 이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학문을 하도록 나를 충동한 지극히 비학문적인 동기임도 침언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학문적인 동기가 고백의 언어로 포장되고, 다시 그 고백의 언어가 인식의 언어로 치장된 분명한 흔적이나 궤적이 엿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인식의 언어를 읽는 그 읽음 속에 고백의 언어가 담겨 있고, 다시 그 속에서 어처구니없는 비학문적인 동기가 숨쉬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책은 학문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나의 책읽기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읽어 내 마음에 드는 책만을 내 학문의 영역에서 훌륭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 찰스 롱의 '화두'

찰스 롱(Charls H. Long)이 쓴 「의미작용 : 종교해석에 있어서의 기호와 상징과 상(Significations : Signs, Symbols, and Images in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n)」을 읽고 아직도 그 책을 귀한 것으로 간직하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나의 책읽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다. 1986년에 출판되었으니까 만9년이 지난 셈이다. 참고문헌에 90년대의 책이 가득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증거라고 학생을 질책하던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책은 낡은 책이라고 해야 옳다. 또한 그것을 아직도 읽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책이 저자가 이 책을 출판하기 20년 전에 쓴 논문도 담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책의 낡음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 저자가 저술한 겨우 두번째 책이다. 첫번째 책은 1969년에 출판한 「알파 : 창조신화(Alpha : Myth of Creation)」인데, 이것도 꽤 긴 서문을 빼고는 아프리카 창조신화들의 모음이다. 자료집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책도 하나의 주제를 전착한 일관하는 저술이 아니라 스무해 동안 써서 발표한 겨우 12편의 논문을 엮은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이 책에 대한 서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자가 1973년에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의 회장을 역임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발간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술지인 「종교학(History of Reli-

저자에 의하면 종교는

극단적인 비판사유의 기반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뭇을 감당하지 못한다.

비판적 사유에 의해 사물이

의미있는 것으로 수용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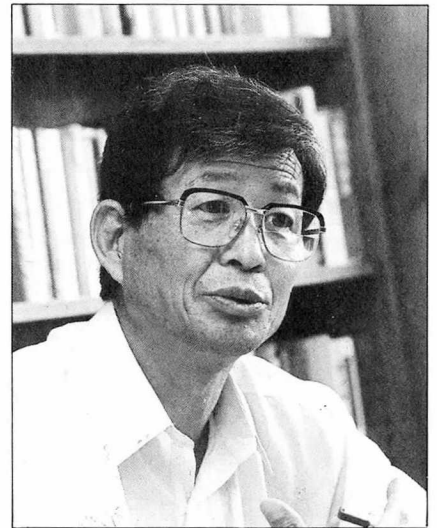
그는 종교학이 종교에 담긴 삶이

아니라 삶에 담긴 종교에 대한

최초의 서술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gions)」의 창간인 중의 하나였음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현상은 기이한 일이다. 이 책의 출판사도 그렇다. 종교학 서적들을 출판하는 정평있는 출판사들이 있다. 시카고 대학의 출판부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의 책은 필라델피아의 포트레스 출판사(Fortress Press)에서 나왔다. 맥이 다르다.

분명히 이 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면 읽을 책이 못된다. 낭



정진홍교수.

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었고, 벌써 여러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다.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하릴없이 이 책을 뒤적였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젊은 친구들에게 추천했고, 그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별로 '투명'하지 않다.

어쩌면 찰스 롱의 다음과 같은 '화두'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본다. "의미를 부여하는 일(signification)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교묘한 짓이다." 미국 흑인들(Afro-American)의 상투어인 이 선언이 소통의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인지 저자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급, 곧 "기표(記標)와 기의(記意)간의 연계는 자의적(資意的)이다"라는 말을 병치시켜 놓고 있다. 서문과 3장으로 나누어 각 장에 4편씩의 논문들을 담은 이 책의 장들은 각기 '종교와 종교연구' '종교와 문화접촉' '미국종교의 그림자와 상징'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 표제들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제들을 통하여 좀더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장에 있는 '침묵과 의미작용', 2장에 있는 '문화-역사적 현상으로서의 하물례(荷物儀禮)', 그리고 3장에 있는 '자유, 타자(他者), 그리고 종교 : 불투명 신학' 등이 그것이다.

### 현실을 객관화하는 작업

저자에 의하면 종교는 극단적인 비판적 사유의 기반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문제에

### 화제의 책

##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동화

「술거나라」시리즈 1차분 33권중 8권 출간



'외국것' 일색이던 유아그림동화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동화가 나와 주목을 끈다.

보림출판사가 유아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고자" 기획한 '전통문화그림책시리즈' 「술거나라」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민속'과 '전통'을 소재로 한 목록을 뽑아 5월말 완간 예정의 1차분 33권으로 기획, 우선 8권을 선보였다.

이번에 발간된 8권은 「한지돌이」 「떡잔치」 「우리로켓」 「해시계 물시계」 「하늘잡고 별 따세」 「하늘 열리고 땅 열리다」 「숨쉬는 향아리」 「마고할미」 등.

얼핏 제목만으로도 '우리것'의 냄새가 강한 8권 가운데 「하늘 열리고 땅 열리다」(글/이수자, 그림/박성완)의 「마고할미」(글/정근, 그림/조선경)는 큰 홍수가 난 뒤 살아남은 오누이가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탄생설화와, 동해와 서해에 발을 담근 채 잠자고 땅을 훑어 산을 만들었다는 마고할미의 이야기다.

독특한 우리문화를 소재로 삼은 동화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한지의 제작과정과 쓰임새를 입체적으로 설명한 「한지돌이」(글/이종철, 그림/이준길)와 계절따라 각기 다른 떡의 맛을 즐겼던 떡문화를 이야기로 엮은 「떡잔치」(글/강인희, 그림/정대영) 해 뜨고 달 지는 시간의 흐름을 탐구한 「해시계 물시계」(글/정동찬, 그림/이영원) 등.

글과 그림 모두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고증됐으며 소재에 따른 독특한 편집과 구성 등 제작에 쏟은 정열도 평가할 만하다.

“  
**핑계가 없습니다**  
 ”

**신사고 신감각으로 고객의  
 최고 만족을 드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마루벌**

저희는 기획, 편집, 인쇄, 사보, 사사, 광고, 제작 전문 집단입니다.  
 '마루벌은 뭔가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홍보·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 디자인, 식자, 출판,  
 재판, 인쇄, 코팅, 제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벌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흔'을 붙여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을 원하십니까?**

사보, 사사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저희 마루벌의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프로의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살아있는 제3의 창조물로 만들어 드립니다.

- **기 획** /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종합 컨설턴트!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달로그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 · 차별적 디자인!
- **운문 · 교열 · 교정** / 완벽한 문장 구성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식자 · 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매킨토시 완벽 출력 서비스!
- **제 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 · 원색 제판!
- **인 색**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 고품질 인쇄!
- **제 직**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 · 제본!

만족이 있습니다



Tel : 701-3720 (대표)  
 Fax : 701-3721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29-22호

**최상의 신감각 디자인 최고의 프린팅 테크닉의 만남**

대한 해답의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한 비판적 사유에 의하여 사물이 의미있는 것으로 수용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범주를 통하여 현실을 새로운 개념을 지닌 것으로 객관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것이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언된 범주'가 그들에게 현실화할 때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언급을 비판적으로 만나면서 스스로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범주' 사이의 괴리 속에서 자기 언어의 문법을 상실한 다.

그런데 자기를 진술할 수 있는 언어의 사실은 해답의 언어를 수용하는 소통문법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적으로 그러한 현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조차 지니지 못하게 하는데 이른다. 내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언된 범주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내 해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의미작용은 의미부여자의 간교한 언어유희가 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쪽에서는 그 의미작용이 공포의 원천이 된다.

찰스 롱은 종교사가 그러한 역사라고 말한다. 특히 근대 이후 서구종교들의 형태가 그러하다. 서구 식민지에서의 아프리카의 종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이른바 종교경험이 이를 실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자리에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의 학문은 결국 그 고백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한다. 그는 미국 남부에서 자란 흑인이다. 그는 이 책을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아칸사스 주 리틀록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헌정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종교사 이해'에 의하면 가장 경멸스러운 것은 이른바 미국에서의 '흑인신학'이다. 그것은 의미부여자의 의미작용이 지니고 있는 언어코드의 되돌림일 뿐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흑인의 자기 언어가 아니다. 흑인신학이 발언하는 언어는 근원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언어'가 그렇듯이 병리학적인 것이다. 그러나 흑인신학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무릇 모든 종교가

그러하다. 선교라는 이름의 의미작용은 '거짓말보다 고약하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종교사는 여실히 실증하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에 의해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무의식적인 욕망에 뿌리내린 종교**

그가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종교학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는 종교학이 종교를 새로운 인문적 관심의 맥락에서 정치(定置)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그는 종교학이 종교에 담긴 삶이 아니라 삶에 담긴 종교에 대한 최초의 서술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종교학의 선택 자체가 어찌면 미국에 사는 흑인인 내 삶의 의미를 빚으려는 보다 깊고 무의식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 종교학만이 내 그러한 욕구에 반응해 주었다."

1971년, 시카고 대학의 스위트홀에서 그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정열에 압도당했었다. 티리히(P. Tillich)와 리코어(P. Ricoeur)와 엘리아데(Mircea Eliade)를 한꺼번에 총횡무진으로 휘저으면서 종교를 되문던 그의 강좌는 내 물음을 처음부터 나 스스로 되문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비문자 문화인 아프리카가 인류의 문화사 안에 정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신도 인간도 선도 악도 시간도 공간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그 문화를 포함하여 철저히 되물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왜 적당히 외면당하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그러나 시카고에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으로 갔던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 바바라 캠퍼스의 종교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단단히 대접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왜 우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의미작용은 거짓말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는 터득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러한 의미작용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애써 주장하는 '새로운 문체론의 연습'이나 '사유 자체의 구조의 변화와 연관된 기하학적 은유의 활용'은 우리와 끝내 무관한 것일까?